

생활을 디자인하면 행복이 더 커집니다

행복이가득한 집

www.design.co.kr 가격 7,200원 2006.6

9 771227 115006
ISSN 1227-1152

상상만으로도 시원한
竹林紀行

요즘엔 요리 잘하고 집 잘 꾸미는 남자가 인생에서 성공한다
공방시대, 손끝으로 만드는 인생의 재미 | 초여름 남편에게 리넨을 입혀라
근사한 명품 박스 120% 활용법 | 흙건축 미술관 김해 클레이아크 뮤지엄
인도차이나 반도로 떠나는 미각여행 | 평범한 진주, 세련되게 치장하기
옥상 위 펜트하우스 vs. 차분한 지하 공간



Organic Style
자연이가득한집



나무와 돌, 스틸을 사용해 담백하고 간결한 아트퍼니처를 제작하는 최병훈 씨의 작업실. 천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빛과 말끔하게 정돈된 이곳에서 그는 세계 예술 무대를 꿈꾸며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공간 곳곳에는 그의 초기 작품과 그가 좋아하는 마이클 토넷의 의자 등이 놓여 있다. 계단 중간에 놓인 의자는 서울디자인 페스티벌에 전시한 작품으로, 론 아리드의 톱박 의자를 다리 부분을 떼어내고 돌 위에 얹어 만든 최병훈 씨의 아트퍼니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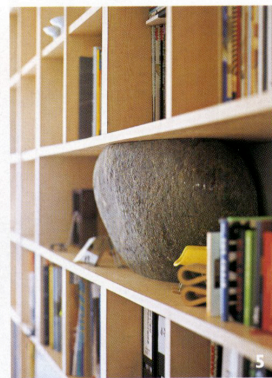
얼마 전 서울 시립미술관에서는 모처럼 전풍경이 펼쳐졌다. 3월부터 한 달 반 동안 열린 찰스 & 레이 임스, 베르너 판톤, 르 코르뷔지에 등 디자인 역사에 굵직한 업적을 남긴 디자이너들이 만든 오리지널 의자를 선보인 〈위대한 의자, 20세기의 디자인〉 전시. 교과서에서부터 접한 누구나 알고 있는 대중적 화가가 아닌, 디자인 서적과 인테리어 잡지를 보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 낯설 법한 디자인 작품임에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길게 줄을 서 표를 구입하는 ‘의외의 선전’으로, 이는 곧 세간의 화제로 떠올랐다. 그런데 여기, 이를 ‘단순한 흥미거리로 치부하면 안 된다’ 험주어 말하는 이가 있다.

가구는 가장 친근한 예술이다 “의자 전시를 보러 온 사람들을 통해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직 외국에 비해 가구를 예술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일진대, 이에 대한 의식 전환이 일어나고, 안목이 높아진다는 신호이니 얼마나 반가운지요.” 홍익대학교 목조형가구학과 교수이자 국내 ‘아트퍼니처 art furniture’ 장르의 개척자인 최병훈 씨. 지난 30여 년간 한결같이 예술 가구를 만들어온 그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의자를 보러 온 사람들의 행렬이 그렇게 고맙고, 뿌듯할 수 없단다. ‘20세기 위대한 의자에 버금가는 작품을 완성하리라.’ 20대의 열정으로 작품을 만들고, ‘세계에 위상

무심하게 바라볼 수 있는 가구가 진짜 예술이다

아트퍼니처 아티스트 최병훈







1 작업실 2층에 자리한 집무실 겸 응접실. 시원스레 탁 트인 공간에 그의 가구로 꾸며진 이곳은 마치 갤러리를 방불케 한다. 그가 앉아 있는 계단 모양의 스틸 의자는 2001년에 탄생한 이후 수많은 컬렉터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떠올랐는가 하면 그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스틸의 두께, 꺾임 각도 그리고 의자를 지탱하는 돌의 무게 등 물리적인 계산과 공학적인 기술의 결합으로 완성된 과학적인 의자이기도 하다. 2 가구 디자인 중에서도 목공예를 전공한 그는 나무에 달통한 장인이다. 그의 나무 작품에는 정갈하게 새겨 넣은 영문 사인이 빠지지 않는다. 3 뚜렷한 프로파일 라인을 갖고 있는 그에게 중절모는 완벽한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패션 아이템. 10여 년 이상 늘 중절모를 쓰고 다닌 덕에 모자 컬렉션만 해도 상당수에 달한다. 4 자연스러운 돌의 느낌을 좋아하는 그는 거실 한쪽에 놓인 의자 옆에 '돌 무덤'을 연출해놓았다. 5 책장 가운데 멋진 오브제 역시 다들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돌덩이. 6 2002년에 제작한 스틸 패넬로 만든 타원형의 벤치, 형 돌린 의자 가운데 놓인 돌덩이가 최병훈 씨의 작품임을 알려주고 있다. 자신만의 캐릭터인 중절모를 착용하고 예술가의 온화한 웃음을 머금은 그의 모습은 작품과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린다.



을 떨치는 가구 디자이너를 육성하리라.' 50대의 진중함으로 강단에 서는 그에게 예술 가구를 좋아하는 대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나온 길에 대한 보상이요,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확신이었다.

최병훈 씨는 15년 전부터 스스로를 '아트퍼니처'를 만드는 아티스트라 정의해왔다. "거실 한가운데 소파와 탁자를 떠올려보세요. 고작해야 하루에 3~4시간 정도 사용할까, 나머지 시간에는 그저 공간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시간 동안 가구는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닐까요?" 최병훈 씨가 추구하는 아트퍼니처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앉고, 엮는 기능성은 기본이요, 그냥 두어도 뛰어난 조형미로 공간에, 사람에게 오브제로서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가구. 디자이너로서 기능성을 고려해 공학적으로 설계하고, 예술가로서 서정적인 조형미를 불어넣고, 장인의 손길로 꼼꼼하게 다

듬은 가구. 그래서 사용한다기보다는 소장한다는 표현이 맞고, 가구라고 하기엔 아까운, 작품에 더 가까운 것이 바로 최병훈의 아트퍼니처다.

무덤덤한 그러나 팽팽한 긴장감으로 무장한 아트퍼니처 족히 3m가 넘는 듯한 타원형의 나무 책상. 나무 패넬을 커켜이 이어 붙인 이 육중한 상판을 그보다 더 묵직한 돌덩이가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모습. 하이힐을 신은 여인의 발걸음을 지켜보는 남자의 마음이 이보다 더할까. 최병훈 씨의 탁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먼저 팽팽한 긴장감으로 물든다. 마음을 다잡고 한참을 살펴보니, 이제야 그 주범을 알겠다. 기둥처럼 매끈한 원통형이거나 작육면체여야 할 다리가 성황당 앞에 얼기설기 쌓아 올린 돌탑 같지 않은가. 조형미를 위한 물리적 감각까지 고루 갖춘 예술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 비로소 그 작품의 진가를 발견한다.





1 작업실 2층에 자리한 거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대형 테이블, 많은 컬렉터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이 테이블은 마치 고인돌처럼 불가사의한 균형감각을 지닌 디자인이 매력적이다. 실제 사용해보니 일체 흔들림 없는 것은 물론 커커이 이어 붙인 나무 테이블의 육중함이 오랜만에 믿음직한 가구를 만난 기쁨을 안겨주었다. 2 맨들맨들한 흰색 대리석과 거친 화강암이 조화를 이룬 스톨, 2006년 작품으로 파리에서 열린 개인전에 소개되었다. 3 흑단에 옷칠을 한 스톨 겸 사이드 테이블, 고급 소재로 통하는 흑단에 동양적인 옷칠 마감의 조화를 이룬 스톨은 파리 전시회에서 높은 호응을 얻은 작품. 4 작업실 2층 복도 끝에는 최병훈 씨의 초기 나무 이트파니처가 전시되어 있다. 지금의 작품과 달리 곡선과 디테일 장식이 두드러지는 화장대, 역시 물감이 가지탱하고 있다. 5 나무 패널을 커커이 쌓아 올려 만든 벤치, 의자와 수납장 그리고 장식장을 모두 겸하는 다용도 벤치는 공간을 구분하는 파티션 역할까지 해낸다. 6 한때 스톨 작업에 몰두할 당시 제작한 의자, 좌판은 나무로, 등받이는 스톨로 만든 가운데 스톨 부분에 페인팅 작업을 하여 장식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 7 흰색 대리석으로 만든 테이블은 한쪽 끝에 움푹한 부분을 만들어 물을 채워 넣는 수반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리는 화강암과 흑단으로 만들었다. 2006년 작품으로 파리 전시회에서 선보였다.



최병훈 씨의 아트퍼니처는 초창기부터 기존 가구에서 볼 수 없는 돌과 나무, 나무와 쇠, 쇠와 돌 등 물성의 대비를 시도하면서 과격적이란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균형이 맞지 않는 입체파의 그림처럼 가구 형태에 미묘한 긴장감을 주기 시작했다. 그 결과 최병훈의 작품은 모두 '정말 가구 맞나?' 의심받는 오브제로, '앉아도 되는지' 호기심을 유발하는 가구로 자신이 정의한 아트퍼니처에 한걸음 한걸음 다가갔다.

담장과 옥상에 문패처럼 걸려 있는 의자가 인상적인 최병훈 씨의 작업실, '아틀리에 초이'. 이곳에는 그가 대학교 4학년 때 공예 대전에서 수상한 목공예 작품부터 페인팅으로 장식한 가구, 돌과 스톨, 나무와 돌이 조화를 이룬 가구 그리고 요즘 제작한 대리석 가구가 곳곳에 포진해 있다. 그의 작품 세계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그 계보를 단순히 훑어볼 수 있는 시간.

간결한 라인에 한결 어른스러운 것은 최근작이요, 구불구불한 곡선에 페인팅 장식의 가구는 초기작이다.

"처음에는 우리네 자연과 정서를 하나하나 설명하려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응시중으로 일관한다고 할까요." 이제선 어디서 손을 떼야 할까, 얼마나 절제해야 할까 하는 것이 작품의 관건이라 말하는 최병훈 씨. 하늘에 덩그러니 떠 있는 달을 닮고 처마의 곡선을 따른 그의 작품은 단순함과 무덤덤함 그 자체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드러나는 한국적 정서와 현대적 감각은 조용히, 말없이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것도 저 멀리 예술의 중심지 파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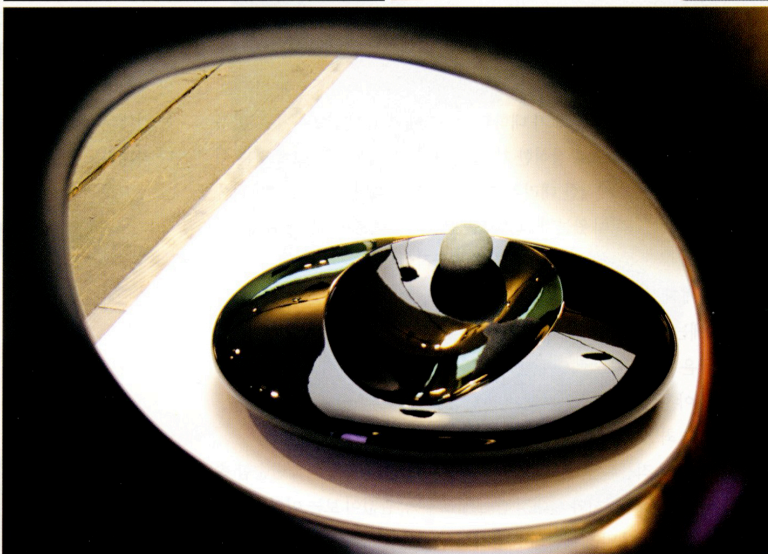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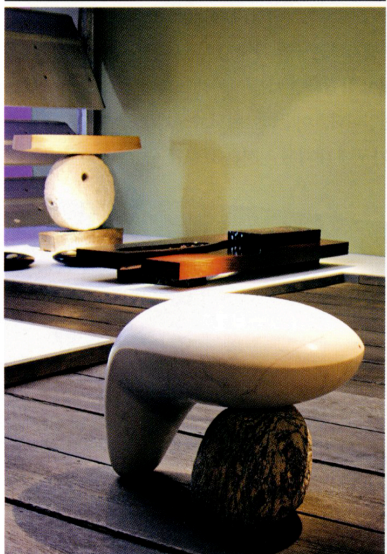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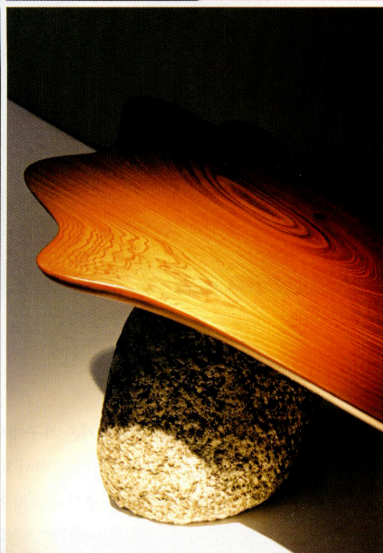
세계 보편적 가치를 지닌 아트퍼니처만이 살아남는다. 아트퍼니처 예술가로서 최병훈 씨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작품의 경쟁력. 작가 혼자 만족하면 안 되고 남들도 좋아해야 하며 더 나아가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공감해야 한다. 누구나, 어디서나 공감할 수 있는 '세계 보편적 가치를 지닌 가구'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아트퍼니처라고 강조하는 그. "물론 모든 사람을 내가 생각하는 미의식에 끌어들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관을 뚜렷이 확립하면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알아보는 컬렉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수년간 가구 디자인을 배운 다 하더라도 절대 그들 가구에 내재된 정서는 표현할 수 없듯, 그들도 우리





“더 이상 그의 작품에
관해 설명한다는 것은
파리 컬렉터들에게
잔소리가 될 뿐입니다.
최병훈 씨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술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감각, 안목을
지니고 있습니다.”

- 파리 갤러리 다운타운 관장 프랑수아 라파노







1, 2 파주의 한적한 농촌에 자리 잡은 최병훈 씨의 작업실, '아틀리에 초이'. 3년 전 지어진 이곳은 그가 직접 디자인하고 꾸민 작업실로 그의 생애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30년의 예술 가구 대가지만 이처럼 완벽 한 작업실을 가진 것은 처음이다. 컨테이너 박스형으로 단순 명료하게 지은 작업실은 2층 창문 부분을 돌출 시켜 포인트를 주었다. 마을 초입에 자리한 아틀리에에 담장 위에는 최병훈 씨가 만든 의자 아트 워크가 전시되 어 있다. 버려진 의자를 색칠하고 나뭇가지와 돌을 조화시켜 만든 이 설치 작품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선한 감 흥을 전해준다. 원래는 매달 한 번씩 작품을 교체하려 했으나 바쁜 관계로 잠시 미뤄둔 상태. 3 나무가 적재 되어 있고 각종 기계와 공구로 채워진 1층 작업실. 제자들과 함께 수업도 하고 작업도 하는 이곳은 최병훈 씨 의 영원한 필드이다. 4 나무뿐만 아니라 돌, 스틸, 아크릴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는 그는 요즘 한창 대리석 의 매력에 빠져 있다. 엄청난 소음과 가루가 날리는 작업이지만 기계이 즐겁게 일하는 그의 모습이 진지하다. 5 손으로 지르고 다듬는 '장인'의 면모를 보여주는 작업실의 연장을, 사진에 보이는 구불구불한 라인의 동판 과 나무로 만든 책장은 최병훈 씨의 제자가 만든 작품이다.



의 감성을 표현할 수 없는 법. 결국 상대를 인정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차별 점을 찾아 이를 요즘 시대와 세계가 이야기하는 가치에 결부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념은 해의에서 먼저 결실을 거뒀다.

지난 5월, 파리 시내 화랑가의 한 갤러리. 세계적 가구 디자이너의 등용문 이자 20세기 가구사에 한 획을 그은 작가들의 오리지널 작품을 선보이는 갤 러리 다운타운에서 최병훈 씨의 초대전이 열렸다. 예술적 안목이 남다른 파 리 한복판에서 한국 작가의 가구 초대전이 개최된다는 것, 분명 엄청난 화젯 거리가 아닌가 싶었는데 그의 전시회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곳에서 열렸었 고, 올해가 벌써 네 번째 초대전이란다. 파리 가구 컬렉터 사이에서 높은 인 기를 구가하는 최병훈 씨 작품은 전시회 오프닝 전날 자정 무렵 디스플레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미 판매 예약되었다는 라벨이 하나 둘 붙기 시작했다. 현 지에서 지켜본 사람에 따르면 신기하게도 컬렉터 모두 작품에 대한 설명 을 듣거나 흥정하는 일 없이 자신의 '감'을 따라 선택해 갔다는 것이다.

“더 이상 그의 작품에 관해 설명한다는 것은 컬렉터들에게 잡음이 될 뿐 입니다. 최병훈 씨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술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감각, 안목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병훈 씨의 작품에서 오래 전 동양 적인 명상과 현대적인 세련미를 발견한 갤러리 다운타운의 관장 프랑수아 라파노 François Laffanour 씨는 그의 가구를 그저 모셔놓는 예술품이 아 니라 사용하는 가구라는 데 역점을 두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프랑수아 라파노 씨가 최병훈의 가구를 수준 높은 컬렉터들에게 소개하고 판매할수

록 국내 아트퍼니처의 가치와 위상은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셈. 최병훈 씨가 말하는 ‘세계 보편적 가치를 지닌 아트퍼니처’는 생각보다 요 원한 것도, 허황된 것도 아니다.

파리지엔의 마음을 흔들어놓은 아트퍼니처. 아쉽게도 모두 파리지엔의 집에 남게 된 그의 가구를 최병훈 씨의 오랜 친구이자 ‘소더비 경매’에서 작 품이 거래되는 세계적 사진작가 배병우 씨가 촬영한 사진을 통해 바라본다. ‘최병훈이 만든 작품을 배병우가 촬영했으니 죽히 8천만 원이 넘는 도록’ 이 라며 웃음과 함께 건넨 책자. 그 속에는 물 흐르는 듯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정형의 스톨과 오래된 목침 위에 땀뿔을 올리고, 또 그 위에 타원형 탁자 를 얹은 아슬아슬한 콘솔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웬지 심각하게, 진지하게 감상해야 할 것만 같은 분위기.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호기심이 앞서서는 단순 한 감각의 소유지는 두 눈이 동그래져 물어본다. “여기에 정말 앉을 수 있을 까요?” 짐짓 후회가 될 무렵, 최병훈 씨가 말한다. 의자로 쓰고 싶으면 의자 로, 장식을 하고 싶으면 오브제로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그리고 한마디 덧붙인다. 좋은 아트퍼니처란 무단하고 담담한 가운데 공간과 마음을 움직이 는 깊은 울림이 있어야 한다고. ● 글 이정민 기자 사진 박찬우, 파리 전시 사진 김미영

20대 청년의 열정과 자신감으로 국내 아트퍼니처 발전에 힘쓰고 있는 최병훈 씨. 그는 학교에서는 양복차림의 존경받는 교수님으로, 갤러리에서는 중절모를 쓴 낭 만적 예술가로. 그리고 작업실에서는 돌을 다듬고 나무를 지르는 장인으로 활동하는 역동적인 삶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생활에 멋과 향기를 더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코 스메틱 브랜드 바비브라운에서 5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선물합니다.

